

# 홍범식 “기술보다 고객에 집중하는 ‘사람중심 AI’ 지향”

〈LG U+ 사장〉

‘4A 인텔리전스’ 전략 공개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제미나이 전방위 확대 적용  
AWS와 B2B AI 혁신 가속화

LG유플러스가 AI 시대를 주도할 핵심 전략으로 ‘사람 중심 AI’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AI 기반 서비스 혁신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자체보다 AI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 AI’를 지향한다”며 ‘4A(안심·Assured, 개인화·Adaptive, 동반자·Accompanied, 이타적·Altruistic) 인텔리전스’ 전략을 공개했다.

홍 사장은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AI 시대 선도 기업이 되겠다”며 “구조적 변화를 예견하고 긴 호흡을 가



LG유플러스가 New AI 시대의 청사진으로 ‘사람 중심 AI로 만드는 밝은 세상’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의 모습. /LG유플러스

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보안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비스 개발 속도와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WC2025에서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자사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구글 AI 엔진 ‘제미나이(Gem

ini)’를 전방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익시오는 글로벌 최초의 온디바이스 기반 AI 에이전트로, 구글의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정교한 분석, 요약, 추천 기능을 갖춘 ‘액서너블 AI’로 진화할 계획이다.

홍 사장은 “구글이 직접 찾아온 국내 유일 사업자는 LG유플러스”라고 강조

하며, LG유플러스가 구글의 선택을 받은 이유로 LG그룹과의 오랜 신뢰 관계 및 통신 기술 경쟁력을 꼽았다. 그는 “구글은 검색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며, AI 시대에서도 검색 기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글과의 협력이 LG유플러스 AI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범식 사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물론, 일본 KDDI, 중동 자인그룹 등 글로벌 통신사들도 익시오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B2B 영역에서도 AI 혁신을 가속화한다. AWS와의 협업을 통해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MWC 2025에서 양사 협력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조만간 AWS와의 협력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한 AI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보안 기술에도 집중한다. LG유플러스는 MWC 2025 전시부스에서 AI 보안 기술을 통합한 ‘익시 가디언’을 공개하며 안티 딥보이스, 온디바이스 sLM(소규모 언어모델), 양자암호(PQC) 기술 등을 선보였다.

홍 사장은 “AI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서비스 개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기업들이 보안을 서비스 개발 후반부에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안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홍 사장은 LG유플러스의 방향성을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아젠다 세터)’으로 설정했다. 그는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 LTE 전국망 서비스, 5G 상용화, 넷플릭스 제휴 등의 혁신을 선보여왔다”며 “이제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AI’를 통해 통신과 AI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AI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산업계 총출동 SKT, 해외기관·기업에 AI 거버넌스 공유

### MWC25 결산

산업 경계 허물어져... 참여사 급증  
삼성D 등 국내 전자부품 기업 ‘두각’  
관전포인트, 中 화웨이·샤오미 선전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가 6일 막을 내린다. 그간 MWC는 이동통신사의 무대였지만 특히 올해부터 반도체는 물론 전자 부품 기업들까지 대거 출동하며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진 모습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MWC 2025’는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이남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라비아 전시관에서 열렸다. MWC25 주제는 ‘융합하라(Converge), 연결하라(Connect), 창조하라(Create), 다. AI가 핵심 산업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모바일기술을 연결해 새로운 시장과 솔루션을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참여 기업은 무선통신과 AI 반도체, 통신장비,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이처럼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올해 MWC의 참여 기업들도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MWC25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은 전년보다 22곳 늘어난 187개사로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통 3사 등 109개사와 스타트업 78개사가 참여한다. 스페인,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기업은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용 부스를 통해 HBM과 올해 AI 반도체 등을 차세대 AI 제품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3E) 등 AI 메모리와 이



지난 3일(현지 시간)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5 샤오미 부스에 전시된 전기차 ‘샤오미 SU7’. /뉴시스

미지 센서 등을 소개했다. 여기에 엑시노스2400과 엑시노스 오토 V920 등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차량용 반도체를 공개했다. 이밖에도 모바일 부문에서는 AI 기능을 확대 적용한 신규 ‘갤럭시 A 시리즈’는 물론 신규 웨어러블인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스토리지 등 첨단 제품, SK의 유리 기관, 리벨리온의 AI 추론 특화 신경망처리장치(NPU) 관련 기술력도 선보였다. 이를 통해 ‘풀 스택 인공지능(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엔비디아도 이번 MWC 25에서 자사 제품을 선보이는 데 힘을 쏟았다. 업계에 따르면 피라그라비아 전시장 근방 지하철역을 엔비디아 광고판이 모두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올해 MWC에서는 국내 전자부품 기업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먼저 삼성디스플레이는 최대 5000니트(nit) 밝기의 차세대 스마트폰 OLED를 전시했다. 이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용화한 ‘무(無) 편광판 디스플레이’인 ‘OCF(On-Cell Film)’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SKC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전시관 내 AI 데이터센터 구역에서 글라스기관을 실물 전시했다.

삼성전기는 고객 미팅 용도로 프라이빗 부스를 꾸렸다. 장덕현 사장이 직접 방문해 고객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의 선전이 관전 포인트였다. 올해 초 미국 제재로 CES 무대를 밟지 못했던 화웨이는 1관을 통째로 빌리며 최대 규모인 1200m<sup>2</sup> 부스를 꾸렸다.

특히 샤오미는 이번 MWC에서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가전제품에 이르는 탄탄한 AIoT 생태계를 구축한 점을 선보였다. 자사 플래그십 단말기 스마트폰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시리즈를 전시했다.

샤오미가 공개한 신형 스마트폰은 ‘샤오미 15 울트라’다. 이 제품은 자체 OS인 ‘하이퍼 OS2’를 탑재해 성능을 대폭 개선했으며 구글과의 협력으로 제미나이도 탑재해 AI 기능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AI 기능을 탑재한 ‘샤오미 SU7 울트라’다. 디스플레이 아래쪽 공간에 샤오미 스마트폰을 두면 자동으로 연동돼 디스플레이에 스마트폰 화면이 표시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KT, 해외기관·기업에 AI 거버넌스 공유

‘T.H.E. AI’ 도입 성과 소개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25’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유럽통신사업자협회(커넥트 유럽), 도이치텔레콤 등 해외 기관·기업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협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AI 거버넌스는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체계를 말한다. SK텔레콤은 정재현 대외협력담당(CGO·사장) 직속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올해 초 출범시켰다. 올해를 AI 거버넌스 확산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번 MWC25에서는 AI 거버넌스 도입 필요성과 함께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와 도입 성과를 소개했다. ‘T.H.E. AI’는 SK텔레콤 AI의 특성 통신기술 기반(by Telco), 사람을 향한 목표(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with Ethics)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AI 행동 규범을 구체화해 사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GSMA 등 기관과 글로벌 사업자들과 AI 거버넌스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축·적용 방안에 대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SKT-엘리스그룹, AI DC 모듈러 분야 협력

(AI 데이터센터)

PMDC 테스트 베드 제작 예정

SK텔레콤이 국내 인공지능(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과 AI 데이터센터 모듈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엘리스그룹은 대면·비대면 교육에 가상화 실습 환경을 구현하는 AI 교육 솔루션 기업이다. AI 실습 서비스를 위한 자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엘리스그룹이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물론 소규모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하드웨어까지 독자 개발이 가능한 점에 주목했다. 향후 양사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신속하게 AI 인프라를



SK텔레콤과 엘리스그룹은 MWC25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AI 데이터센터 모듈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

확보하고자 하는 고객이 사업 초기 적은 용량, 특정한 솔루션부터 빠르게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모듈러 데이터센터 모델을 사업의 한 축으로 추진 중이다.

양사의 AI DC 기술이 접목된 PMDC 테스트베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